

# 결승선을 통과 못한 왕

\* 10/15(금) 열왕기하 ❸ 9–12장

## 분열왕국 1–17장

이스라엘 왕 아하시야 1장  
엘리야의 승천, 엘리사의 계승 2장  
이스라엘 왕 여호람 3장  
엘리사의 기적들 4장  
엘리사의 이야기 5장–8:15

유다 왕 여호람 8:16–24  
▶ 유다 왕 아하시야,  
이스라엘 왕 예후 8:25–10장  
· 아하시야 : 여로보암의 길 / 1년  
· 아합의 집의 사위  
· 예후 : 여로보암의 길 / 28년 통치  
· 이세벨의 끝, 예언의 성취  
· 예후 왕조 시작  
▶ 유다 왕 아달랴 11장  
· 악한 왕 / 6년 통치  
· 다윗 왕조의 대위기  
▶ 유다 왕 요아스 12장  
· 선한 왕(산당 예외) / 40년 통치  
· 요아스와 제사장 여호야다  
· 성전 수리  
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 13:1–9  
이스라엘 왕 요아스 13:10–25  
유다 왕 아마샤 14:1–22  
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 
14:23–29

유다 왕 아사랴 15:1–7  
이스라엘 왕 스가랴 15:8–12  
이스라엘 왕 살롬 15:13–16  
이스라엘 왕 므나헴 15:17–22  
이스라엘 왕 브가히야 15:23–26  
이스라엘 왕 베가 15:27–31  
유다 왕 요담 15:32–38  
유다 왕 아하스 16장  
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 17장

### 참고도서

100주년기념 성서주석  
두란노 HOW주석  
성서유니온 열왕기  
통성경 길라잡이

### Before 출치며 읽기

선택의 자유를 주신  
하나님을 묵상하며  
통독해 보십시오.

### • 예후, 인생 1막 : 파죽지세(破竹之勢)

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으심으로,  
이스라엘 왕을 세우셨습니다(삼상 10:1, 16:13).  
엘리사의 제자가 예후의 머리에 기름 부어,  
북이스라엘의 열 번째 왕이 탄생합니다(9:1–3).

### After 묵상하기

나의  
믿음의 결단은  
무엇입니까?

“평안(պ’良心, 살롬)하냐(9:18).”

지금은 안녕(살롬)의 때가 아니라, 심판의 때입니다.  
‘나봇의 토지’에서 아합 집안사람들에게 보이신,  
‘나봇의 꾀’에 대한 하나님의 응보입니다(9:21, 25–26, 왕상 21:19).

엘리야가 말한 대로, 이세벨이 막을 내립니다.  
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넘어 온 임무,  
그 예언이 성취됩니다(9:6–7, 10, 왕상 19:15–17).

여로보암은 다윗과 같은 견고한 집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(왕상 11:38). 그러나 그는 중도 포기했습니다. ‘여로보암의 죄’입니다(왕상 14:8-9).

#### • 예후, 인생 2막 : 꺾인 기세

아합의 집과 바알 숭배를 멸했습니다. 바알은 우상 중 하나입니다. 여로보암이 단과 벤엘에 세운 금송아지는 남겨둠으로, ‘전심으로(with all his heart)’ 따르지 않는 ‘여로보암의 죄’를 범합니다(10:28-31, 왕상 14:8).

그럼에도 불구하고, 이 우상숭배자에게 4대에 이르는 왕조를 약속하십니다. 여호아하스, 요아스, 여로보암 2세, 스가랴는 예후의 후광을 등에 업습니다. 다윗과 유다의 선한 왕에게 주어지는, 여호와 보시기에 ‘정직한 일’을 행했다 말씀하십니다(왕상 15:11, 22:43, 왕하 12:2, 14:3, 15:3, 34, 16:2, 18:3, 22:2).

그는 예언을 성취했고, 시대에 꼭 필요한 소명을 이뤘습니다. 그러나 피비린내 나는 그의 무대, 이스라엘의 죄과는 결국 이스라엘에게 돌아옵니다(호 1:4).

#### • 요아스, 인생 1막 : 파란만장(波瀾萬丈)

이스라엘 왕 뿐 아니라, 유다 왕도 ‘여로보암의 길’을 걷습니다. 아합과 이세벨의 피가 유다에 흐릅니다. ‘아합의 집’ 같아집니다(8:18, 27).

예후는 아합의 집을 멸했습니다. 아합은 끝이 났지만, 죽음의 위기 속에도 다윗의 집은 끝나지 않습니다(11:1-3). 나이 일곱에 왕이 된 요아스의 뒤에,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습니다. 무관심 속에 방치되었던 <성전>을 수리합니다(12:4-16).

#### • 요아스, 인생 2막 : 바뀐 입장

그랬던 그가, 마음을 돌립니다(대하 24:17-19).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(12:20-21).

요아스는 솔로몬같이, 40년을 통치했습니다(왕상 11:42).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, 요아스가 재건축 했습니다. 그러나 과거의 영광과 비교하면 초라하기 짹이 없습니다(12:13, 왕상 7:50).

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의 것으로, 하사엘에게 조공을 바칩니다(12:17-18). 이스라엘 왕이 ‘사방의 태평’을 누리던 날과는 이제 거리가 멽니다(10:32-33, 왕상 5:4).

신앙생활은 완만한 평지를 걷는 것이 아닙니다. 가파른 오르막길입니다. 신앙의 진보가 없다면, 현상 유지도 어렵습니다. 점차 내리막길입니다.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, 주님 앞에 설 때까지 ‘유종의 미’를 거두십시오. ‘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’ 달리십시오(딤후 4:7-8).